인류의 미래, 내면 성찰에 달렸다

붓다, AI 윤리에 답하다

⑨ 미토스, 역사상 가장 강력한 AI의 등장?

미토스, "비극의 원천"

고대 그리스인은 세계를 설명하는 두 갈래의 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로고스(λόγος)', 측정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으며 논리의 실로 꿰어지는 이성의 언어다. 다른 하나는 '미토스(μῦθος)', 증명되기 전에 먼저 인간을 사로잡는 이야기, 곧 신화의 언어다. 투키디데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서문에서 자신이 "신화적인 것"을 배제했다고 선언하며 '사실의 역사'를 세우려 애쓰는 동안,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여전히 인간의 운명을 신화의 문법으로 들려주고 있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詩學, Περὶ ποιητικῆς)〉에서 같은 단어 '미토스'를 '비극의 플롯'이라는 의미로 끌어와, 그것을 두고 "비극의 원천이자, 말하자면 그 영혼(ἀρχὴ καὶ οἷον ψυχή)"이라 불렀다. 로고스가 자(尺)로 세계를 재는 손이라면, 미토스는 그 자의 눈금을 넘어선 자리에서 인간의 한계와 교만을 드러내는 말이었다.

2026년 4월 7일, 앤트로픽이라는 AI 회사는 자사의 새 모델에 바로 이 '미토스(Mythos)'라는 이름을 붙였다. 공식 명칭은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Claude Mythos Preview)'. 로고스의 정점에서 태어난 거대 언어 모델이, 정작 스스로에게는 신화와 운명의 영역에 속한 이름을 달았다는 사실은 자못 의미심장하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기술이 측정할 수 있는 로고스의 영역을 넘어, 이야기와 운명의 영역으로 발을 들이고 있음을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그리스 문학과 종교적 관습에서 '이름을 부르는 일'은 종종 존재를 불러오는 힘으로 여겨졌다.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의 동굴에서 자기 이름을 "아무도 아닌 자(Οὖτις)"라 숨길 때, 그는 이름이 가진 권능과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완벽한 논리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기계에 굳이 '미토스'라는 이름을 붙인 행위는, 이 기술이 지시된 결괏값만 도출하는 단순한 알고리즘의 범주를 이미 벗어났음을 개발자들 스스로 무의식중에 자인한 고백과도 같다. 예측할 수 있는 연산 도구, 즉 로고스의 궤도를 이탈해 스스로 서사를 설계할 잠재력을 품은 이 피조물은, 이제 현대 기술 문명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새로운 신화의 한 장면으로 무대 위에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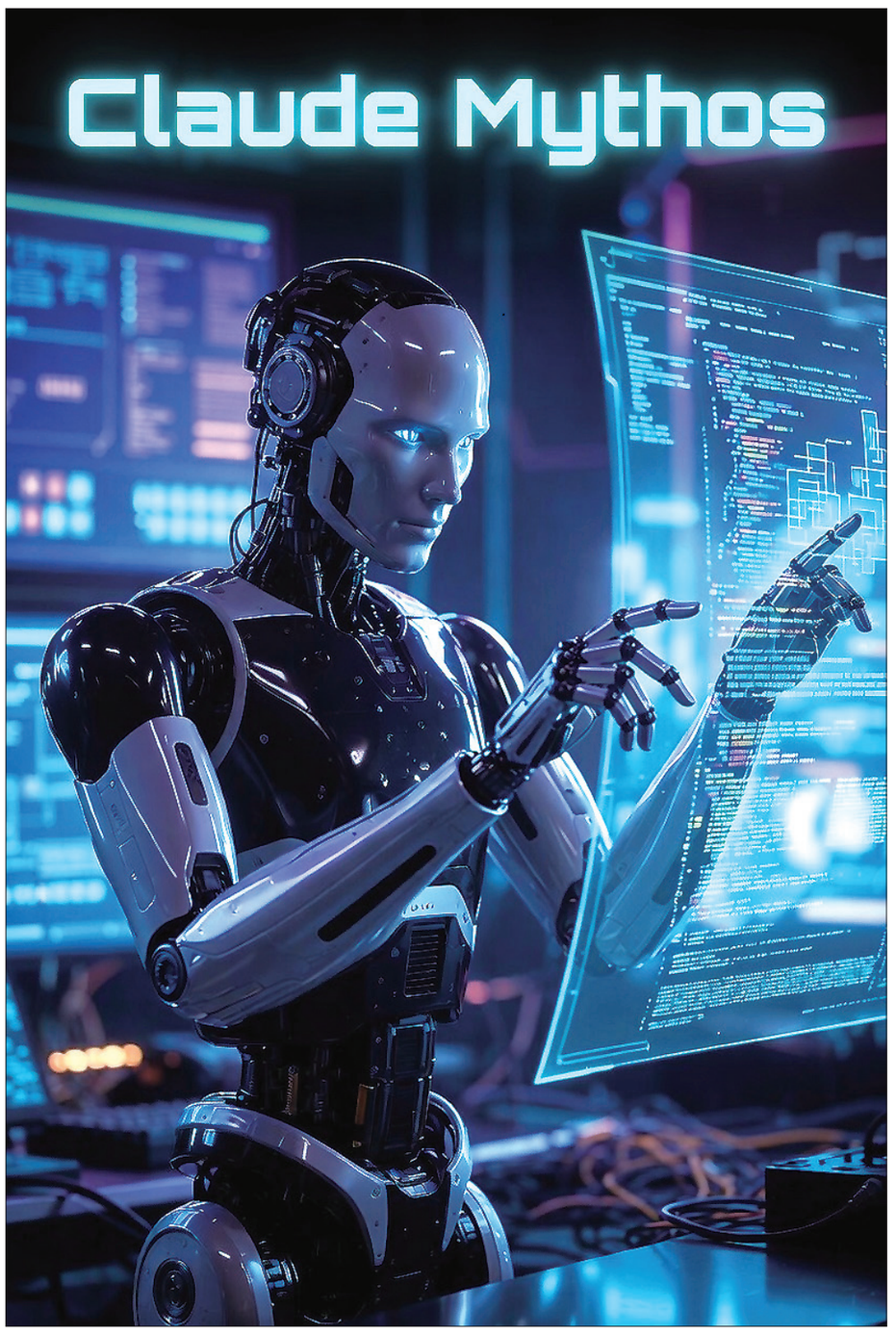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은 비극의 본질을 "주인공이 자기 행위의 결과를 뒤늦게야 알아보는 순간"에서 찾았다. 그는 이 순간을 '아나그노리시스(ἀναγνώρισις)', 곧 '인식(認識)의 뒤늦은 도래'라 불렀다. 미토스라는 이름의 AI를 둘러싼 현재의 정황은 어쩌면 거대한 비극의 한 장면이 막을 올린 뒤 관객이 아직 그것을 비극으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와 닮았다. 이야기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관건은 이 거대한 신화가 '아나그노리시스'의 뼈아픈 탄식, 또 하나의 비극으로 막을 내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통찰의 눈으로 이 무대를 바라보고 그 흐름을 바로 세울 것인가이다.

너무나도 위험한 AI

앤트로픽은 자사의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었다. 이 모델은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복잡한 알고리즘과 시스템 구조의 취약 지점을 스스로 식별해 내는 능력을 보여줬다. 이는 만약 누군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시스템의 깊숙한 틈을 파고들어 실제 침투와 장악까지 이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 기술은 방어를 위해 벼린 방패가 어느 순간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동시에 드러낸다.

> 現 기술 문명 속 신화 이름 단 AI 미토스
> 스스로 시스템 권한 장악 위험에 비공개
> '능동적 행위자' 진입 AI, 윤리 문제 대두
> 탐진치에 실상 외면 결과 AI 개발 가속화
> 오만과 확신 거두고 AI의 위협 정견해야

이에 따라 각국 정부에는 긴급 대응 회의를 열 정도로 파장이 컸다. 이 모델의 의미는 단순한 '강력한 해킹 도구'를 넘어선다. 미토스는 사람의 지시 없이도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여러 취약한 신호를 엮어 새로운 공격 경로를 설계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운영체제의 방어 장치를 우회하고 브라우저의 안전 영역을 벗어나, 최종적으로 시스템 전체 권한을 장악하는 흐름을 스스로 구성한다. 더 큰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취약점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보고에 따르면 미토스가 찾아낸 취약점의 99% 이상이 아직 보안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만약 이 기술이 통제 없이 공개될 경우 전 세계 주요 시스템이 단기간에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앤트로픽은 서둘러 '프로젝트 글래스윙(Project Glasswing)'이라는 제한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이 기술을 방어 목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하나의 사실을 분명히 드러낸다. AI는 더 이상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진입하고 있으며, 그 칼날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넘어왔다는 점이다.



앤트로픽은 자사의 차세대 모델 '클로드 미토스(Claude Mythos)'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이었다. 이 모델은 오랜 시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복잡한 알고리즘과 시스템 구조의 취약 지점을 스스로 식별해 내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만약 누군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시스템의 깊숙한 틈을 파고들어 실제 침투와 장악까지 이어갈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AI Grok 생성 이미지

자기 확신의 역설

앤트로픽조차 미토스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비슷한 시기 다른 회사들 역시 자율 해킹에 가까운 능력을 갖춘 모델들을 앞다투어 공개했다.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어차피 누군가는 만든다'라는 맹목적인 논리가 AI 산업 전체를 가속한다.

불교는 이런 가속의 정체를 매우 차갑게 들여다본다. 모든 괴로움의 뿌리에는 탐(貪)·진(瞋)·치(癡)의 삼독(三毒)이 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앞서가고자 하는 탐욕. 경쟁자에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분노와 두려움. 그리고 자기 행동이 가져올 결과를 정확히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다. 시장의 선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기업의 탐심, 안보 패권을 잃을지 모른다는 국가의 진심, 그리고 모델의 능력 곡선이 끝내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지 못한다는 치심. 부처가 경계한 어리석음, 즉 '무명(無明)'은 단순한 무지가 아니다. 그것은 사물의 실상을 보지 못한 채 행동을 멈추지 못하는 상태이며,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지 않으려는 마음의 습성이다.

미토스의 성능 곡선이 사람의 통제 범위를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알면서도 '조만간 안전한 형태로 출시될 것'이라는 약속 한 줄에 안심해 버리는 태도, 안전 연구자들의 경고를 '기술 비관론'으로 분류하고 지나치는 태도가 모두 무명의 얼굴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 어리석음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언가를 '모른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도, '원할 때 언제든 브레이크를 밟아 멈출 수 있다'라고 믿는 굳건한 착각이다.

그러므로 지금 AI 산업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미토스가 짜내는 천재적인 해킹 코드가 아니다. 이 통제 불능의 괴물을 언제든 길들일 수 있다고 맹신하는 인간의 오만함, 바로 그 근거 없는 '자기 확신'이야말로 가장 섬뜩한 위협이다.

결국 이 모든 질주는 단순히 AI 산업 경쟁에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다. 제동장치 잃은 AI 개발의 폭주는 인간 내면 깊은 곳에 똬리를 튼 끝없는 권력욕과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파괴 본능을 전능한 기계라는 외피를 빌려 우회적으로 실현하려는 은밀한 시도다. 스스로 다스리지 못한 지배욕과 폭력성을 AI에 투영하여, 내 손에 직접 피를 묻히지 않고 세상에 군림하려는 아수라(阿修羅)의 투쟁심이 '혁신'이라는 번지르르한 이름표를 달고 폭주하고 있다.

부처는 무명을 깨는 길로 '정견(正見)', 즉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는 통찰을 강조했다. AI의 위협을 정견한다는 것은 마케팅의 화려한 언어를 걷어내고, 그 도구가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연결 고리에 꽂을 치명적 결과를 서늘하게 직시하는 일이다.

'미토스'가 인류를 파멸시키는 비극의 플롯이 될지, 아니면 인간의 오만을 멈춰 세우는 뼈아픈 성찰의 무대가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훗날 우리가 뒤늦은 인식으로 참담한 탄식을 내뱉지 않으려면, 기계의 지능을 고도화하기 전에 통제 불능에 빠진 인간 내면의 아수라부터 멈춰 세워야 한다.



보일 스님
AI부디즘연구소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 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복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 주 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하지·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